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

2016년 봄 학기 개강 안내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청소년들의 자존감 회복, 개인의 자율성의 함양,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서 좋은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단계	프로그램 명	요일/시간	형식	강사
중고등부	제1꼭지 생각을 다듬는 독서 · 토론 루쉰, 『아Q정전』 읽기	3월 26일 개강 매주 토 (총8강), 10:00~11:30	읽기/강의/ 토론	추교준 (전남대 철학 박사과정 수료)
고등반	제2꼭지 자유인의 도덕 고대 그리스의 윤리학	3월 29일 개강 매주 화 (총8강), 19:30~21:00	읽기/강의/ 토론	박정민 (전남대 철학 박사과정 수료)

신청기간 : 2016년 3월 8일 ~ 2016년 3월 25일

강의기간 : 2016년 3월 26일 ~ 5월 17일

학 수강료 : 꼭지 당 각 10만원

☎ 문의: 백송이 (010-9884-0166)

★ 신청방법 :

①첨부된 신청서를

E-mail: youthphilo@hanmail.net로 송부,

②계좌에 수강료를 입금한다. 끝.

광주은행 074-107-427879 / 예금주 : 류도향 (청소년철학)

*강의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층 210호 강의실

*다음 카페_ <http://cafe.daum.net/youthphilo>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생각을 다듬는 독서 · 토론

루쉰, 『아Q정전』 읽기

이 수업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서-토론의 몇 가지 규칙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책을 읽은 뒤,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대한 함께 답을 찾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다듬어내며, 단단하게 다지는 방법을 배우고 익힐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리 정한 책을 읽고 난 뒤(독서), 자유롭게 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토론) 자신의 생각을 간단한 글로 정리하는 활동(글쓰기)을 하겠습니다. 이 강좌에 참여할 학생들은 매번 작품을 소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신이 스스로 고전 문학을 읽은 뒤, 자신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내려보는, '주체적 사유'를 익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 속에서 때로는 즐거움을, 때로는 진지한 고민을 마주하며 자신의 삶을 조금씩 주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길 바랍니다.

- ▶ 때·곳 : 2016년 3월 26일~ 5월 14일 토요일 10:00 ~ 11:30 (총 8강)
- ▶ 진 행 : 추교준(전남대 철학과 박사수료)
- ▶ 교 재 : (1) 루쉰, 전형준 옮김, 『아Q정전』, 창작과 비평사. ☞ 각자 구입
(2) 보충자료: 『루쉰 <아Q정전> 읽기』, 자체제작 ☞ 강사가 직접 준비
- ▶ 참여주체 : 중학교 2학년 ~ 고2학년 또는 그 포레 청소년.
- ▶ 참여인원 : 12명 안팎.
- ▶ 진행방식 : 수업 시간에 낭독, 수업 시간에 토론하기, 토론 후 글쓰기.
- ▶ 준비물 : 『아Q정전』, 필기 도구, A4 사이즈 수납 파일.

날 짜	세 부 내 용	비 고
1강 (3월 26일)	이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아Q정전』 읽기 전 활동	강의+독서
2강 (4월 2일)	『아Q정전』 독서-토론 <주요 물음들: 예시>	토론, 메모 +강의
3강 (4월 9일)	1. 아Q의 자만심 - '아Q'의 근거없는 자만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근거 없는 자만심은 어떤 점에서 위험한가?	
4강 (4월 16일)	2. 아Q의 정신 승리	
5강 (4월 23일)	- '아Q'의 '정신 승리'의 핵심은 무엇인가? - 정신 승리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6강 (4월 30일)	- 작품 내에서 정신승리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7강 (5월 7일)	3. 아Q의 비겁함	
8강 (5월 14일)	- '아Q'는, 아니 우리는 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가?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대 청소년 철학교실 <생각을 다듬는 독서·토론> 강좌 안내

1. 이 강좌는 장기적인 계획(약 2~3년 예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용적으로는 동·서양의 <문학→문학+역사→문학+역사+철학>으로 확장되며, 형식적으로는 <읽기→읽기+토론하기→읽기+토론하기+글쓰기>로 확장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계	1	2	3
분 야	문학	문학+역사	문학+역사+철학
주요 방법	읽기 → 읽기+토론하기 → 읽기+토론하기+글쓰기		
텍스트	조지 오웰, 『동물농장』 (2016, 겨울) 루쉰, 『아Q정전(2016, 봄)』	배경식, 『식민지 청년, 이봉창의 고백』, 『백범일지』, 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 등 (예정)	플라톤, 박종현 옮김, 『소크라테스의 변론』, J.S. 밀, 서병훈 옮김, 『자유론』, 공자, 배병삼 풀어 씀,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 등
현 과정	✓		

※ 계획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2. <생각을 다듬는 독서·토론> 수업의 주요 세부 활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1) 자신의 문제의식(물음)을 가지기
- (2) 그 물음을 또렷하게 다듬고 두루두루 확장(‘개인적 관점’→‘사회적 관점’)하기

3. 이 수업에 참여 하는 학생들은 ‘정답을 알아맞히는 것’보다는 ‘물음을 가지는 법’을 배우고 ‘생각을 확장하는 법’을 익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며 ‘성장’의 길입니다.

4. 이번 강좌에서는 8주에 걸쳐 루쉰의 『아Q정전』을 꼼꼼히 읽고, 스스로 물음을 던지며, 함께 생각을 확장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5.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 말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Sapere aude!”(과감히 생각하라!)

자유인의 도덕

고대 그리스 윤리학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 이것이 ‘도덕/윤리’의 물음입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자유롭게 살고 싶기도 합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살고 싶지는 않으니깐요. 그러면 과연 ‘도덕적인 사람’은 자유로울까요? 도덕은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면서 우리를 강제하고 억압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삶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것이 이 수업에서 우리가 궁리해야 할 물음입니다. 물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윤리학을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유를 삶의 이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의 글을 함께 읽고 개념과 논리를 이해하는 연습을 한 후, 텍스트에 담긴 물음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 때·곳 : 2016년 3월 29일~ 5월 17일 매주 화요일 19:30 ~ 21:00 (총 8강)
- ▶ 진 행 : 박정민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료)
- ▶ 교 재 : 교재는 강사가 매 시간 제공합니다.
- ▶ 참여주체 : 고등학생 또는 비슷한 또래 청소년
- ▶ 참여인원 : 15명 안팎

날 짜	세 부 내 용	비 고
1강 (3월 29일)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것인가? - 영웅들의 삶과 죽음	호메로스
2강 (4월 5일)	아버지를 때리면 왜 안 되나? - 도덕과 관습	소피스트
3강 (4월 12일)	너 자신을 돌보라 - ‘나’라고 하는 심연	소크라테스
4강 (4월 19일)	내 존재는 언제 완성되는가? - 이상적인 인간	플라톤
5강 (4월 26일)	언제 나는 행복한가? - 인생의 목적에 관하여	아리스토텔레스
6강 (5월 3일)	내 인생 최대의 적은 내 안에 있다? - 긍정적인 마인드에 관한 성찰	스토아 학파
7강 (5월 10일)	오늘 하루는 즐거웠는가? - 쾌락에 관하여	에피쿠로스
8강 (5월 17일)	종합토론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청소년 철학교실

1. 청소년 철학교실의 탄생 배경

청소년 철학교실은 2005년 여름부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 철학교실>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빛고을 철학교실은 <교사를 위한 윤리학>과 <청소년 철학교실>, <기초 라틴어 강좌>, <기초 희랍어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06년 전남대학교 철학과가 정부의 BK21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함으로써 더욱 활성화 되었습니다. <빛고을 철학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철학교실>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인문강좌>로 세분화되었고, 현재 청소년 철학교실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주관으로 각 계절마다 (1년 4학기) 다양한 주제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철학교실의 운영 목적

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성인들 못지않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기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혹은 ‘왜 살아야 하는지’ 등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묻고 대답해볼 기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전남대 <청소년 철학교실>에서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좁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넓게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청소년철학교실 외부강의 운영안내

인문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 철학교실 개설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청소년 철학교실은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와 협약 하에 강사가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출장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는 1꼭지당 8회(주 1회, 2시간)로 이루어지며, 원활한 토론을 위해 참여자는 20명 내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획 의도나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과 운영방식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철학교실 출장 강의는 2015년을 기준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약 20여개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외부 출강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youthphilo@daum.net).